

'침묵을 깬 기록'...여순10·19역사관 순천에 개관

순천유족회, 국내 첫 전시실 마련
18개 주제 전시...역사교육 활용 기대

한국 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기록된 여순사건을 조명하는 역사관이 순천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사단법인 여순사건순천유족회는 순천시 장천동 유족회관 2층에 여순10·19사건 역사관을 마련, 지난 5일 개관했다.

개관식은 이날 오후 2시 전시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족 대표단과 순천시,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연구자 등 2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관식은 이날 오후 2시 전시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족 대표단과 순천시,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연구자 등 2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역사관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와 연구 성과, 유족과 지역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 개요와 전개, 유족의 상황과 활동, 통계로 보는 피해 상황, 진실규명의 노력과 여순항쟁 역사지도, 여순사건의 왜곡과 왜곡, 기록물 등 18개 주제로 구성·전시됐다.

앞서 역사관은 순천유족회가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와 협의하고 순천시의 지원으로 유족회관 2층을 구조변경해 마련했다.

순천지역 여순사건 관련 역사 연구자와 활동가, 디자인 전문가로 기획팀을 꾸려 자료 발굴 및 주제별 구성, 디자인 완성 등 1년여의 과정을 거쳤다.

역사관은 개관 후 해설사를 배치해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사)여순항쟁순천유족회 순천회관 2층에 문을 연 여순10·19사건 역사관에서 한 관계자가 전시자료를 해설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허석 순천시장은 "여순10·19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여순항쟁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에 여순10·19항쟁 역사관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여순항쟁의 역사는

이제 기억의 역사를 넘어 기록의 역사로 하루속히 유가족 통한의 세월이 보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순항쟁 순천유족회 관계자는 "여순10·19항쟁 역사관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역사교육의 장이

자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간으로써, 역사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여순항쟁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유근기 곡성군수 자치경영 '최고경영자상'

유근기(사진) 곡성군수가 제2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6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상은 재선 이상 단체장 중 지역발전이 공헌하고 주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한 단체장에 주어진다.

유 군수는 '군민행복지수 1위'를 국정목표로 목표 실현을 위한 군정운영 6대 방침 및 실천전략을 수립해 군민체감형 군정을 펼치고 있다.

평가에서 높은 점수 받은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특화사업 개발과 청년이 돌아오는 곡성 실현을 위해 농촌교육과 인문 체험교육 강화 등이다. 또 도란, 멜론, 백세미 등 지역 농산물 명품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과 아동·여성·노인 등 전 세대에 걸친 촘촘한 그물망 복지 실현 정책 등 6대 군정운영 실천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

임대료 30% 감면 연말까지 연장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를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광양항 항만배후부지에 입주한 56개사와 항만관련부지에 입주한 18개사 등 총 74개사다. 감면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이들 기업은 3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7~9월 임대료에도 소급 적용한다.

앞서 공사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의 규모에 따라 3~8월분 임대료의 10~20%의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외국인 친화도시로 거듭난다

누구나 찾고 싶은 포용·개방·매력 도시 기본계획 수립

광양시가 외국인 친화도시를 선포하는 등 글로벌 도시로 거듭난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도시 광양' 비전 실현을 위해 외국인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광양지역은 항만도시의 특성 상 외국인 선원이 많고 세계 9개국 17개 도시와 국제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와 관광, 취업 분야에서 방문·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글로벌 도시 광

양을 만들기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과 관계기관·단체 간담회,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는 소통·적용·융합·자급·친화 5단계의 과정을 담은 외국어 인프라, 생활 지원, 사회 융합, 봉사 참여, 시민의식 개선 등 총 5개 분야 21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먼저 외국어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외국어 명예통역관 위촉과 통역자원봉사자 풀 운영 등을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시민 외국어 학습



분위기 조성, 외국어 음식 메뉴판, 외국어 표지판·안내판 개선 등 추가 사업들을 진행한다.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거주 외국인 1대1 멘토제, 외국인 상담창구 운영, 사회·인권·법률 교육,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빠른 사회융합을 지원하는 외국인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외국인 문화·스포츠 동호회 활성화, 외국인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무료 외국어교실 강사 참여, 모국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외국어 시정 홍보 등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외국인과의 근거리 문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마인드 향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시 외국인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사업별 제반 사항을 고려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광양시에는 1682명의 외국인이 등록돼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서 국제차문화산업전 열린다

10~11일 다도 교육·차 품평대회

우수한 차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제2회 국제차문화산업전이 오는 10~11일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다.

고려천태국제선차연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폐막식은 열지 않기로 했다.

공식 행사와 공연은 취소하는 대신 다도 교육과 차 품평대회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더 늘렸다.

차 품평대회는 전문가의 차 품평에 이어 일반 시

민도 참여해 맛을 평가할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라도 차를 맛보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품평대회와 함께 열리는 제2회 효사랑 다도예절경연대회는 가족들의 참여를 이끌어 부모에 대한 효를 바탕으로 사라져가는 전통예절을 짚어보는

가족 행사로 진행한다

주최 측은 올해 행사를 위해 6월부터 6개월 과정으로 다도 예절 인성 지도자와 제2차 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

장미향 고려천태국제선차연구보존회 이사장은 "차는 면역력이 뛰어나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매우 좋다"며 "차 문화의 보고장인 순천 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차 문화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에

여수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포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p> <p style="text-align: center;">"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p>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